

잃어버린 세계와 만나는 특별한 시간여행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사라져가는 장소들의 지도

트레비스 엘베라 지음, 성소희 옮김

이 도시를 건설하고 다스린 사회는 청결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을 거라 짐작된다. 정교한 배수시설과 공중목욕탕 흔적 때문이다. 건물 규모도 크고 유물 가운데는 도기를 비롯해 상아 공예품 등이 출토됐다. 이곳은 지난 1980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지정됐다.

위에 열거한 도시는 어디일까? 바로 파키스탄의 고고학 유적지 모헨조다로이다. 이곳은 기원전 2500년에서 기원전 1700년 사이에 인더스강 부근에서 번성한 문명 중심지다. 언급한대로 위생적인 수준이 꽤나 높다. 또한 불에 구운 벽돌 건물이 격자 구조로 배치돼 있어 정교하고 체계적이다.

1850년대 철로 공사를 하던 인부들이 붉은 석조물을 발견했다. 처음에는 공사에 방해되는 장애물



로 생각했다. 그러나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한 이들이 체계적으로 발굴을 시작했다. 도시는 무려 5km 가까이 뻗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마침내 모헨조다로가 인류사의 한 페이지에 등장하기에 이른다.

사라진 또는 사라져가는 장소들을 모티브로 한 '사라져가는 장소들의 지도'는 특별한 시간여행을 선사한다. 지난 2020년 영국 에드워드스토포드 '올해의 여행책'에 선정된 바 있다. 영국의 작가이자 평론가인 트레비스 엘베라가 저자로, 그는 지금까지 '여행하며 보낸 일 년', '런던에서 보낸 일 년' 등의 작품을 펴냈다.

책에는 모헨조다로, 하투사, 마하발리푸람, 페트라, 알렉산드리아, 찬찬과 같은 도시들이 이야기 나온다. 이들은 과거의 지도에서 상당 부분 잊히거나 사라진 곳들이다. "옛모습의 그림자이거나 단순한 폐허"로 환기되는 도시들이다.

저자는 모두 37곳의 장소를 탐험한다. 지도 44장과 도판 77장을 매개로 떠나는 시간여행은 잃어버린 세계와 만나는 순간이다.

터키의 하투사는 히타이트제국의 중심지였다. 고고학 증거에 따르면 기원전 60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히타이트는 유대인들과 맞선 세력들로 중동 지역 또는 지중해 지역에 퍼져 있었다. 기록에 따르면 이집트 람세스 2세와 히타이트 하투실리스

3세의 군대가 기원전 1279년경 시리아와 레바논 국경 인근에서 전투를 치렀다. 그러나 어떻게 된 영문인지 거의 흔적이 남아 있지 않았다.

1834년 프랑스 고고학자 샤를 텍시에가 터키 아나톨리아 지방을 탐험했다. 그는 수도 앙카라에서 160km 떨어진 곳에서 거대한 폐허를 발견한다. 이후 독일 고고학자 후고 빙클러가 수십 년간 천착한 끝에 마침내 히타이트제국의 중심지라는 사실을 확인한다. 전성기 시대의 면적이 "고대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 가운데 하나"였다고 전해질 만

큼 광대하다.

남아메리카 고대 도시 콜롬비아의 시우다드페르디다는 '잃어버린 도시'라는 뜻을 담고 있다. 지난 197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사실은 도굴꾼에 의해 중요 유적들이 도난을 당한 상태였다. 이보다 훨씬 앞선 1578년에는 스페인 정복자들이 귀족품을 죄다 가져갔다.

저자는 "하지만 시우다드페르디다를 결코 잊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토착 원주민 부족인 코기족이다. 코기 사람들은 시우다드페르디다 인근에서 수

세대에 걸쳐 살고 있다"고 언급한다. 그들은 유럽 정복이 있기 전 서기 800년경에 본거지 데이우나를 건설하기도 했다. 페루의 마추픽추보다 650년 앞섰다.

이밖에 책에는 2004년 쓰나미로 자취를 드러낸 인도의 마하발리푸람을 비롯해 로마제국의 최남단 도시 팀가드 같은 도시가 등장한다. 또한 기후 위기로 사라질 장소들에 관한 이야기도 나온다.

<한겨레출판·2만3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파키스탄 신드주의 모헨조다로 유적에서는 중요한 발굴 작업이 이루어졌으며, 이곳은 1980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남자가 된다는 것

니콜 크라우스 지음, 민은영 옮김

제목이 확 눈길을 끄는 소설은 손이 가기 마련이다. 제목이 소설의 방향을 암시하고 스토리 전개를 예단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미국 문학잡지 '그라타'가 선정한 '미국 최고 젊은 소설가' 중 한 명으로 뽑혔고 '뉴욕커' 선정 '주목할 만한 40세 이하의 작가 20인'에 올랐던 니콜 크라우스의 이번 작품이 그런 예다. 소설 '남자가 된다는 것'은 인간의 복잡하면서도 본질적인 속성을 대담하게 전작한 작품이다.

이번 소설은 작가의 첫 번째 단편집으로 그동안 작가가 다양한 지면에 발표하거나 새로 집필한 작품을 모은 것이다. '작가들의 작가'로 불리는 니콜 크라우스는 예리한 지성과 풍부한 감성으로 독보적인 작품 세계를 구축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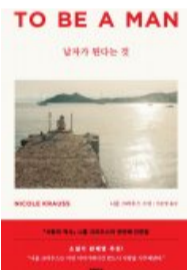
이번 소설은 기존의 다층적인 서술 방식으로 추구했던 장편과 달리 서사의 구조가 간결하고 담백하다. 장편과 달리 단편이 지닌 일반적인 특징인 개인과 현실과의 문제를 다룬다.

모두 10편의 수록된 소설 가운데 표제작 '남자가 된다는 것'은 불가해한 세상에서 남성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의미를 묻는다. 물론 남성의 시지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여성으로 나아가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의 본질적인 질문을 하기도 한다.

작가는 특히 부모와 자식, 연인 등 다양한 관계에서 발견되는 남성성, 물리력과 폭력을 잠재적 요인으로 하는 남성성을 다양한 각도에서 이야기한다. 주인공 여성은 독일인 남자친구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남성성에 대해 양가적 감정을 갖는다. 그러면서 해변에서 있는 두 어린 아들이 소년에서 '남자'가 되어가는 변화를 바라보며 그것은 막을 수 없는 변화의 실재라는 사실도 깨닫는다.

<문학동네·1만4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울림-삶의 아름다운 의미를 찾아서

마틴 솔레스케 지음, 유명미 옮김

김영란 전 대법관은 이 책에 대해 이렇게 상찬했다. "바이올린을 만드는 기술과 삶의 근원을 만나는 경험이 맞닿아 있음을 깨닫게 한다"고. 또한 백수린 작가는 이렇게 말했다. "나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저자가 바이올린을 만드는 데도 때문인 듯하다. 공명판이 만들어진 상태를 존중하며 작업을 진행하고 나무와의 대화를 통해 곡면을 어떻게 만들지 결정하는 그의 매일매일은 마치 구도자의 일상처럼 경건하다"고.

비러 바이올린 제작 아틀리에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마다 20대의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를 만들어내는 마틴 솔레스케의 책 '울림-삶의 아름다운 의미를 찾아서'가 그것이다. 지난 10년 간 수십 만 독자들에게 영감과 위안을 주었던 책이다.

한마디로 책에는 바이올린 장인이자 영적 순례자인 마틴 솔레스케의 작업과 작품 세계의 근간을 이루는 사유가 집대성돼 있다. 가장 특징적인 것은 저자가 바이올린을 만드는 과정을 삶에 비유한다는 데 있다.

저자는 악기들을 만들다 보면 특별한 순간이 찾아온다고 말한다. 작업실에서 경험하는 거룩한 순간과 연관돼 있다.

"그런 순간에 나는 삶의 외적·내적 일들을 새롭게, 다르게 지각한다. 단순히 습득된 지식을 넘어서는 경험이다." 그러면서 저자는 또한 이렇게 부연한다. 모든 사람들의 삶의 일상에도 그러한 순간이 있다고 부연한다. 단지 우리 인간은 그러한 순간에 귀를 기울이는 법을 배우는 과정일 뿐이라는 것.

독실한 크리스천인 저자의 사유에는 풍성한 성경 비유는 물론 장자와 노자, 플라톤 등의 지혜 등이 담겨 있어 말 그대로 깊은 '울림'을 준다. <니케북스·3만2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클래식 감상 수업

유니쓰, 루바토 지음

클래식이 다시 주목 받는 시대다. 그러나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면서도 이와 관련한 지식 또는 감상 수준이 얼마 자랐는지 좋아한다고 말하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 유니쓰(김지운), 루바토(이지애) 작가가 '사이 클래식' 독자들을 위한 '클래식 감상수업'을 출간했다.

클래식 음악을 좀 더 잘 감상하기 위해 우리는 도서나 자료를 찾아 읽으며 정보를 수집한다. 작곡가의 일생과 주요 곡에 대한 정보, 각 시기의 음악적 특징과 문화적 배경 등등. 머리 속에 정보를 한가득 넣고 음악을 재생한다. 그러나 정보들이 어렴풋이 머리 속에 스쳐갈 무렵 음악은 끝이 난다.

습득한 지식이 감상에 제대로 연결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두 저자는 이 부분에 주목했다. 작곡가들은 자기 기분대로 곡을 쓰는 게 아닌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만든다. 그래서 작곡가의 의도에 맞게 작품을 분석하고, 이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독자들에게 전달하며 현실적으로 듣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두 저자의 목표다.

'클래식 감상 수업'의 초점은 '감상'에 맞춰져 있다. 100개의 곡을 음악적 특징에 따라 리듬, 선율, 화음, 구성, 음색, 테크닉으로 나눠 독자들에게 어떤 관점으로 곡을 감상하면 좋을지 힌트를 준다.

두 저자는 2년 동안 발행한 뉴스레터 원고를 전면 수정해 편집했다. 미발행 원고도 다수 수록됐으며, 우리에게 친숙한 클래식 고전 음악부터 생소한 현대음악까지 100곡을 엄선했다. 챗터마다 삽입돼 있는 음악 감상 QR코드를 열고 본문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음악 안에 숨어있는 이야기들이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진다. 클래식을 눈으로 듣고 귀로 이해하는 놀라운 과정이 한 권의 책에서 이뤄진다. <뜨인돌·1만8000원>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